

교회:

부서:

이름:

예수교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

청소년 공과

제 15 권



KAFC 출판부

주제: 성경 속 인물 탐구(Personality Profile)

순서	청소년 공과
제 183 공과	하나님을 따라가자(아브라함)
제 184 공과	일기장(룻의 아내)
제 185 공과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세요(이삭)
제 186 공과	잃어버린 유산(에서)
제 187 공과	침례요한
제 188 공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 189 공과	올바른 선택(베드로)
제 190 공과	누군가의 믿음(바울)
제 191 공과	크고 날카로운 이빨(요나)
제 192 공과	하나님의 능력(엘리사)
제 193 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모세의 어머니)
제 194 공과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솔로몬)
제 195 공과	공과 복습

이 책에 실린 모든 내용, 디자인, 이미지, 편집 구성의 저작권은

KAFC(한국 사도의신앙교회 출판부)에 있습니다.

허락 없이 복사 및 수정, 배포할 수 없습니다.

들어가면서

사전에서 프로필(profile)의 뜻 중 하나는 “인물의 가장 뛰어난 특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생생한 전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인물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위험한 일을 겪은 인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습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 일을 지낸 요나 이야기를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승리의 삶을 산 인물도 있습니다. 모세를 제외하고 어떤 선지자들보다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세상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돔을 떠나며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한 롯의 아내를 살펴보면서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15 권에서는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12 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킨 “믿음의 영웅”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을 통해 성경적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공과는 지금까지 배운 공과들을 복습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해 볼 것입니다.

제 183 공과 하나님을 따라가자(아브라함)

성경 본문: 창세기 12:1-4, 15:1-6, 21:1-5

요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1)

“카덴, 손 씻을 때까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되겠구나,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니?”

카덴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부러졌어요. 몇 번 고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새 자전거 가 필요해요.”

카덴의 어머니는 낙담한 아들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와 나는 네가 돈을 벌어서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얘기했지. 너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가 번 돈으로 자전거를 살 수 있단다. 그런데, 오늘 영어시간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한 발표는 어땠니?”

“괜찮았어요. 그런데, 새로 온 영어 선생님은 저의 발표 내용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저의 발표는 괜찮았지만 내용이 비현실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믿지 않으시니?” 어머니께서 물어보았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수업이 끝난 후 나를 부르시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해 주셨는지 물어 보셨어요. 나는 2 년 전에 구원받은 일을 간증했어요. 어쩌면 선생님은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카덴에게 초콜릿 쿠키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발표하면서 힘들었겠구나. 엄마는 네가 주님을 증거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고 믿는단다. 우리가 영어선생님이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기도해야겠구나.”

카덴은 다음날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걸어서 공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되길 원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 선생님은 나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 돈으로 자전거를 산 후 선생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싶어.’

그는 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나무가지에 걸터 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공원 근처 집 뒤뜰에 있는 작은 건물에 태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서 나무에서 내려와 길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태양이 반짝이던 곳은 온실 화원이었습니다. 그가 그곳 주위에 서 있을 때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친절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카덴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이요.”

할머니는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나는 네가 나의 화원을 지켜보는 것을 보았단다. 너는 내 화원에 들어가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네가 시간이 된다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카덴은 할머니의 친절할 모습이 좋아 보였고, 화원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좋아요.” 카덴이 대답했습니다.

카덴은 할머니와 함께 온실 화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수백 그루의 꽃과 화초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많은 꽃들로 무엇을 하시나요?”

“나는 이 꽃들을 우리 마을 꽃시장에 판단다. 다양한 품종의 꽃들이 많아서 나는 꽃을 판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지.”

두 사람은 꽃들 사이를 걸으면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서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남편과 아들은 하늘 나라로 갔단다. 손녀딸이 대학에 다닐 때는 나랑 같이 지냈지. 그 애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아파트에 살면서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단다. 손녀딸이 가끔씩 와서 화원에 물도 주고, 꽃도 손질해주며, 나를 도와 주었지만, 지금은 그 애가 많이 바쁘단다.”

출입문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카덴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 한 시간씩 여기에 와서 나를 도와 줄 수 있겠니? 나는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돈을 주었으면 하는데.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니?”

카덴은 기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저도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자전거를 사기 위해 일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정말 잘 됐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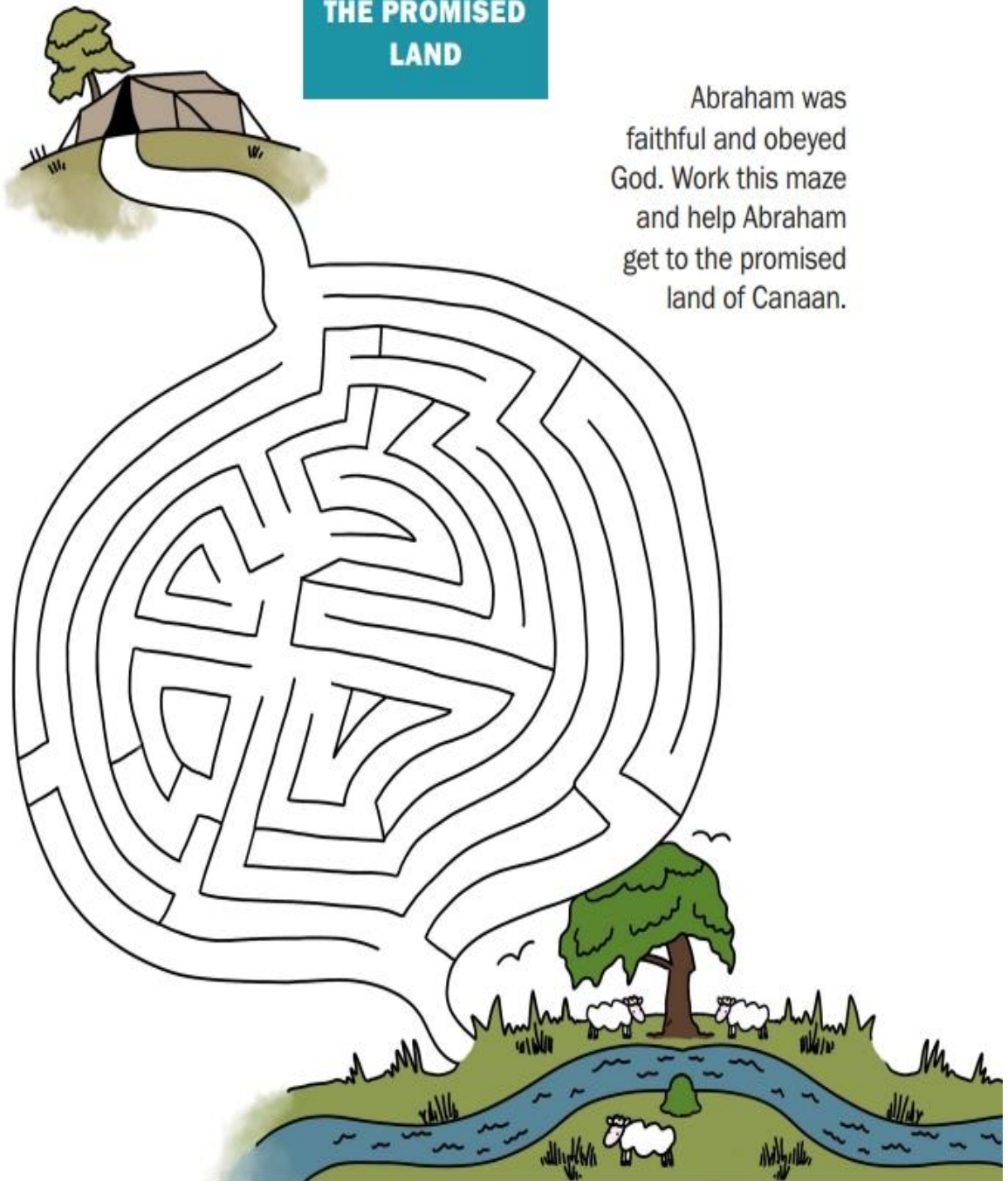
“그래, 잘 됐구나, 나는 나를 도울 친절할 청년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기도 하고 있었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셨네. 내 손녀에게 이 얘기를 꼭 해야겠구나. 손녀는 아직 크리스천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거든. 그 애는 올해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하게 된 프랜클린인데, 혹시 그 선생님 아니?”

카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분은 바로 저희 반 영어 선생님이에요.” 카덴은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집으로 향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카덴이 속삭였습니다.

Lesson 183 Activity

**THE PROMISED
LAND**

Abraham was faithful and obeyed God. Work this maze and help Abraham get to the promised land of Cana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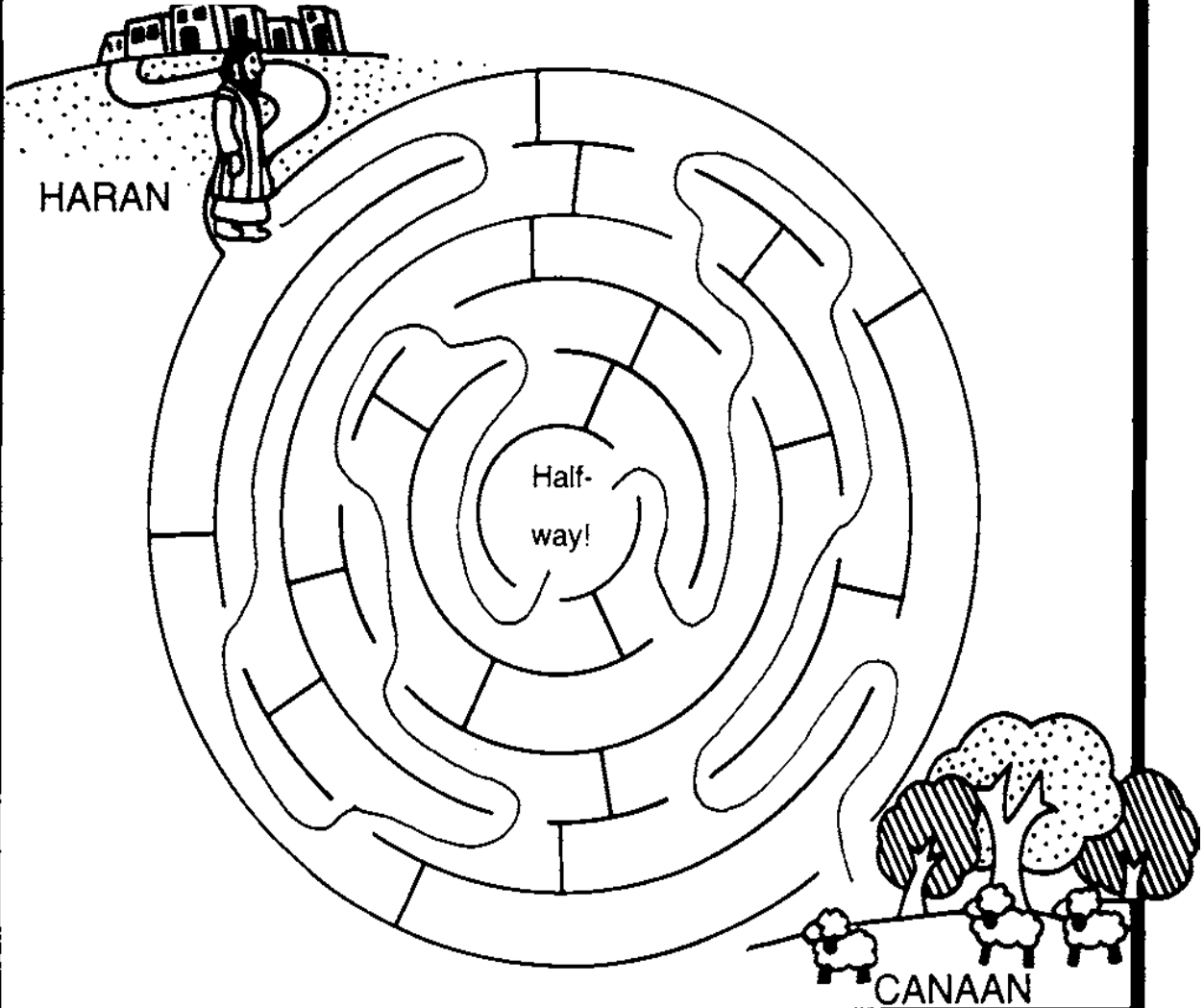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have a big family. Unscramble the words below and put them in the right order. You'll find a truth that you should always remember.

EPSKE ODG SHI MISSEPRO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로를 따라 아브라함의 길을 찾아보세요.



God promised Abraham that he would have a big family. Unscramble the words below and put them in the right order. You'll have a slogan that you should always remember.

ODG

EPSKE

SHI

MISSEPRO

GOD KEEPS HIS PROMISES

제 184 공과 일기장(롯의 아내)

성경 본문: 창세기 19:15-28

요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32)

6월 19일

일기장아

안녕! 나는 생일 선물로 너를 받았단다. 나는 여기에 나의 속마음을 적어 볼 거야. 먼저 내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평범한 소녀란다. 내가 요즘 제일 기쁜 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나는 테바 마이클스(연예인)의 새로운 앨범을 구입하기 위해 용돈을 저축할 거야. 그녀의 노래는 정말 멋지거든. 그녀는 새로운 TV 쇼 "Misadventures at Music High"에서 Zoe 역을 맡았어. 나도 그 사람처럼 머리 스타일을 하려고 생각 중이야. 글썄, 엄마가 허락한다면. 오늘은 정말 긴 하루였어. 내일 좀 더 많이 쓸게..

8월 15일

여름 방학이 정말 금방 지나갔어. 이제 3 주밖에 안 남았어.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새로운 곳도 가고 싶은데... 최소한 캘리포니아까지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어.

할리우드엔 갈 수 있다면 마이클스를 꼭 보고 싶어. 나는 그녀가 나온 잡지를 모두 모았어. 나는 그녀를 사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꼭 만나고 싶어. 그녀는 출연진들과 함께 봄에 여행을 떠난대. 그녀는 정말 멋져! 나도 그녀처럼 되고 싶어. 그녀는 멋진 외모, 잘생긴 남자 친구, 많은 돈, 고급 차, 멋진 집 모든 것을 갖추고 있잖아. 내 삶은 너무 지루해.

9월 17일

학교생활은 그냥 그래. 새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여학생들을 보면 부러운 것만 빼고. 내 옷은 그들의 옷과 비교하면 형편없어 난 엄마가 정말 싫어. 왜 엄마는 새 옷을 사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엄마는 내가 새 옷이 필요하면 용돈을 모아서 사라고 하시는데 말이야. 마이클스라면 나와 같은 이런 끔찍한 삶을 참아내지 못했을 거야. 나도 마이클스처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옷 잘 입는 나의 모습을 엄마에게 꼭 보여주고 말 거야.

12월 4일

나는 엄마 아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말했어. 나는 더 이상 인형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미야. 내가 마이클스처럼 되려면 엄마 아빠가 나를 어린이가 아니라 조금은 어른처럼 대해줬으면 좋겠어.

2월 2일

아빠가 오늘 아예 우리에게 회사 일로 3월에 로스앤젤레스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아빠 출장 일정과 봄방학이 같은 주여서 우리 가족은 모두 로스앤젤레스로 가기로 했어. 친구가 그러는데, 마이클스가 3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할 예정이래. 나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콘서트에 가자고 할 거야. 나는 마이클스의 노래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부모님에게 말해야겠어. 나는 부모님이 내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라 믿어.

3월 7일

나는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없어. 다음 주에 로스앤젤레스로 가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테바 마이클스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이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어.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해. 그녀는 동료 배우들에게 무례했으며, 영화감독과도 자주 언성을 높이고 싸웠을 뿐만 아니라 남자 친구와도 다툼이 있었다고 했어. 몇 주 전에 그녀는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해. 나는 너무 혼란스럽고 실망스러워. 나는 그녀가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

일기장 3월 9일

나는 오늘 사촌 재시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재시의 가족이 어제 우리 집에 와서 오늘 자고 가게 되었거든. 재시는 나의 상심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 재시도 자살한 연예인들을 동경하며 그들을 따라 하려고 했었다고.

재시는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 재시는 그 일을 통해 자기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 그런데, 나는 그때 어려서 어떤 일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 재시의 아빠가 몹시 아프셔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었데. 재시는 아빠를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 재시는 이 땅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미야.

나는 재시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뻐. 나는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잊고 살았던 거야. 나는 테바 마이클스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유명한 연예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 내일은 주일이야.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지금부터 기도해야겠어.

Lesson 184 Activity

GOD FIR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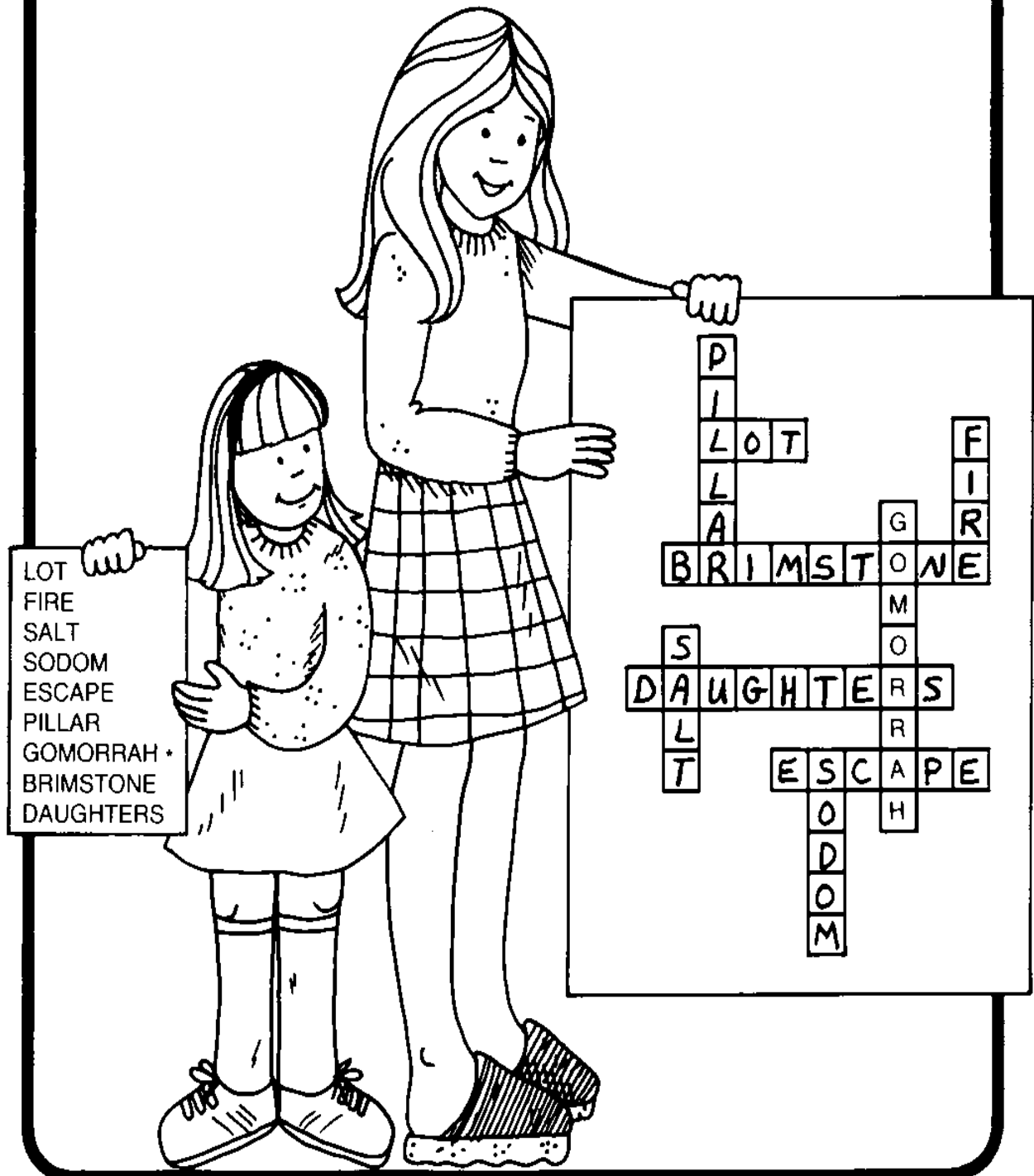
We must remember to keep God first in our lives. The words listed below are from the Bible text that tells what happened to Lot's wife because she loved the things of the world more than God. Write the words into the correct spaces on the grid.

LOT
FIRE
SALT
SODOM
ESCAPE
PILLAR
GOMORRAH
BRIMSTONE
DAUGHTERS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래 단어들은 롯의 아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성경 본문 속 단어입니다. 빈칸 퍼즐에 알맞은 단어를 적으세요



제 185 공과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드리세요(이삭)

성경 본문: 창세기 22:6-14, 24:1-8, 62-67, 26:1-5, 17-33

요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이삭은 자기 다리를 비비고 양들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풀잎을 뽑아 장난스럽게 양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그 양은 재채기를 했고 이삭은 그 모습을 보고 낄낄 웃었습니다.

오래전, 이삭이 처음 양 떼를 치는 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마리의 양에게 너무 특별한 애정을 쏟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양을 영원한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의 어미가 이 양을 낳을 때 돌아가셨기에 이삭은 다른 양보다 이 양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 양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이삭은 몸을 굽혀 어린 양을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들판 저 멀리 아버지가 마구간에서 당나귀를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여행 준비를 위해 나귀에게 물건을 싣는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가지 않을까 기대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잘 다녔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는 재빨리 양을 내려놓고 마구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양도 그의 뒤를 따라 즐겁게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여행을 가시는군요." 이삭이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마지막 매듭을 묶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가야 할 곳이 있단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에 올라가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시네. 아들이, 너도 나와 함께 갈 거란다."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이 조금 슬프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먼지투성이의 오솔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이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 동안 들판에 있는 양들을 보았어요. 내가 돌보는 양보다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제가 특별히 아끼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버지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왜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는 이삭의 말을 듣고 괴로워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적당한 말이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끼는 양을 원하신다면 드릴 거예요. 내 마음은 많이 슬프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멈춰서 이삭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맑은 눈물이 아브라함의 검게 그을린 뺨에서 흰 턱수염까지 흘러 내렸습니다.

이삭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작은 희생이에요. 아버지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아끼는 많은 양을 드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들아, 네가 아끼는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큰 희생일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너에게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지. 하나님도 그 양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실거야.”

아브라함은 그들과 같이 온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나는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아브라함은 나귀에서 나무를 꺼내어 이삭의 등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작은 등불과 칼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걸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이삭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할 나무와 불은 가지고 있는데 희생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말씀에 의아해 하였지만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터벅터벅 산을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가 멈춰 서서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 곳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고 택하신 곳이다.” 아브라함은 즉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사할 나무가 정돈되자 그는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이삭은 자신이 희생제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심장이 거의 멎을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 이삭은 아버지의 눈에서 고통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제단에서 일어나 도망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보다 강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어 올리자, 이삭은 눈을 감고, 마지막 숨을 내 쉬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가 뒤를 돌아보니, 덩불 속에 불이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숫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희생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 이삭과 아브라함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삭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순종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삭은 기꺼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음 번 제사에는 자신이 아끼는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esson 185 Activity

LET'S FOLLOW ISAAC'S EXAMPLE!

If we want God to use us in His work we must obey Him. We must be loving and peaceable and prayerful. Isaac was all of these things, and God used him. The words on the list below are from our Bible text. Find them in the puzzle and circle them.

DESSELBBJXSONJB
BCDXWOODURMDEES
HAEBMALZAXEBZTE
EEVEGYPTBYMTRMR
RPOEBUSXEMEIXEV
DWLRXZJBANVZBBA
SIMSUSOHTEBEFGN
MFBHLIAFXFKUVNT
EEZEXRSOUANEFIX
NBMBBMBAHXIZURU
XAYANGELALFBEEZ
CBAXUZOTQCEHQFE
MLLEWRBAMBTUBFR
AXSBDXURUAHTAOI
RKINDREDFENIM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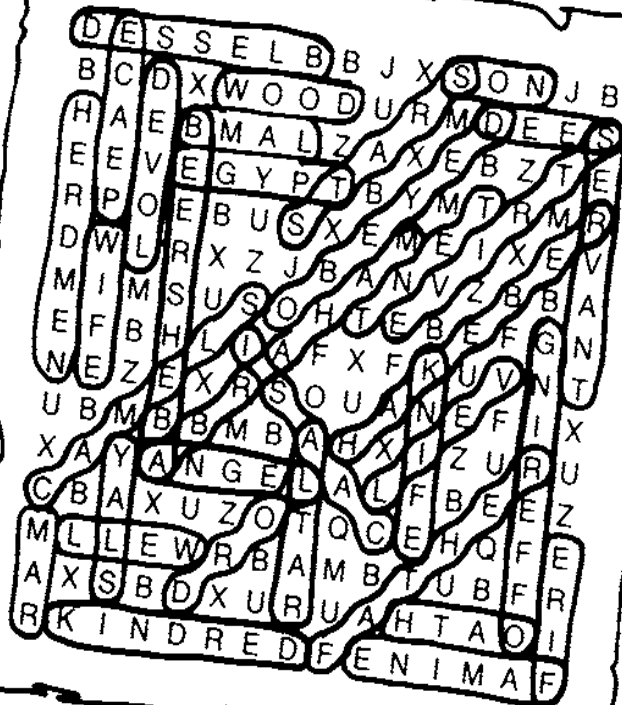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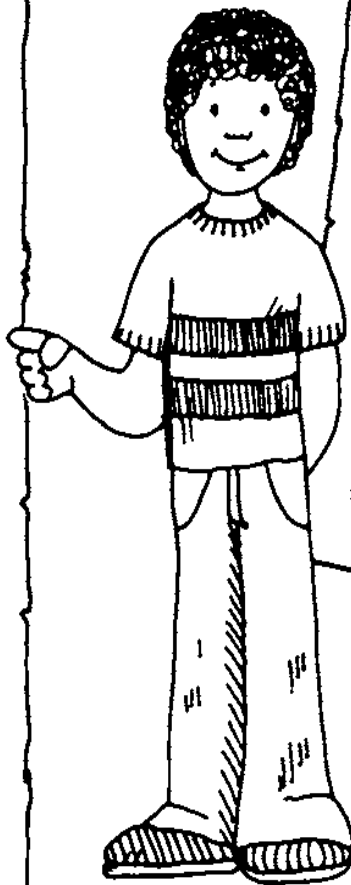
RAM	ALTAR	ABRAHAM
SON	ANGEL	BLESSED
FIRE	EGYPT	HERDSMEN
LAMB	ISAAC	KINDRED
LORD	KNIFE	REBEKAH
OATH	LOVED	SERVANT
SEED	PEACE	OFFERING
SLAY	STARS	BEERSHEBA
TENT	CAMELS	
VEIL	FAMINE	
WELL	FATHER	
WIFE	OBEYED	
WOOD	STRIVE	

Find Romans 12:18 in your Bible and write it in the box below.
It tells what God wants you to do.

이삭을 본받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포용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은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퍼즐에서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RAM
SON
FIRE
LAMB
LORD
OATH
SEED
SLAY
TENT
VEIL
WELL
WIFE
WOOD
ALTAR
ANGEL
EGYPT
ISAAC
KNIFE
LOVED
PEACE
STARS
CAMELS
FAMINE
FATHER
OBEYED
STRIVE
ABRAHAM
BLESSED
HERDMEN
KINDRED
REBEKAH
SERVANT
OFFERING
BEERSHEBA



Find Romans 12:18 in your Bible and write it in the box below. It tells what God wants you to do.

"If it be possible, as much as
lieth in you, live peaceably
with all men."

제 186 공과 잃어버린 유산(에서)

성경 본문: 창세기 25:27-34, 히브리서 12:14-17

요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36)

"레오!" 아버지가 거실에서 레오를 부르셨습니다. 레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자, 아버지가 거실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빠, 부르셨어요?"

"증조할아버지의 성경이 선반 위에 없네. 너의 엄마는 성경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가 성경을 보았니?"

레오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빠, 지난주 사회시간에,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어요. 내가 에이브러햄 링컨의 서명이 적힌 성경이 집에 있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는데, 아무도 네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어요."

레오의 아버지는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성경을 가져가기 전에 아빠에게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잖아.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어디에 있니? 성경을 집에 가져왔니?"

레오는 생각을 한번 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도 학교 가방 안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라니!"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난 성경이 확실히 너 가방에 있었으면 좋겠구나. 레오, 당장 성경을 찾아봐. 성경은 아주 귀한 물건이라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면 안 돼."

레오는 방에 가서 가방을 열어보았습니다. 가방 안에 교과서가 들어 있었지만, 성경은 없었습니다. '아, 아빠가 화내실 거야!' 레오는 지난주 수업이 끝난 후 정말 성경책을 가방에 넣었는지 기억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친구들에게 보여 주고 책상 속에 넣었는지, 책상 위에 놓아두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놔두었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레오, 가방 안을 찾아보았니? 성경책 거기 있니?"

레오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버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루어야 했었는데 너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했습니다. '아빠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생각했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레오의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레오의 곤란한 얼굴을 보고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성경을 찾지 못했구나."

"아빠, 가방에 없는 걸 보니 학교에 있을 거예요. 가방에 넣는 것을 깜박 잊은 것 같아요. 아마 내 책상에 있거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학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레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니? 그 성경은 우리 집안에서 몇 십년 동안 유산으로 물려받은 특별한 보물이야. 그것은 나중에 너의 것이 될 것인데 말이야. 증조할아버지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 하실 때 적었던 글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은 날짜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다. 그 성경은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유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책이란다. 그런데, 그것을 아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학교에 가져갔다가 잃어버리다니."

레오는 아버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내일 꼭 찾아볼게 요."

다음날 레오는 학교 책상 속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도 물 어보고 학교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찾지 못했습니다.

레오는 가족의 보물이자 유산인 성경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과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주는 특별한 축복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파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에서는 그날 자신이 내린 결정을 후회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Lesson 186 Activity

**HOW MUCH IS
IT WORTH?**



F 4 R W H 1 T 3 S
 1 M 1 N P R 4 F 3
 T 2 D 3 F H 2 S H
 1 L L G 1 3 N T H
 2 W H 4 L 2 W 4 R
 L D 1 N D L 4 S 2
 H 3 S 4 W N S 4 5
 L 4 R W H 1 T S H
 1 L L 1 M 1 N G 3
 V 2 3 N 2 X C H 1
 N G 2 F 4 R H 3 S
 S 4 5 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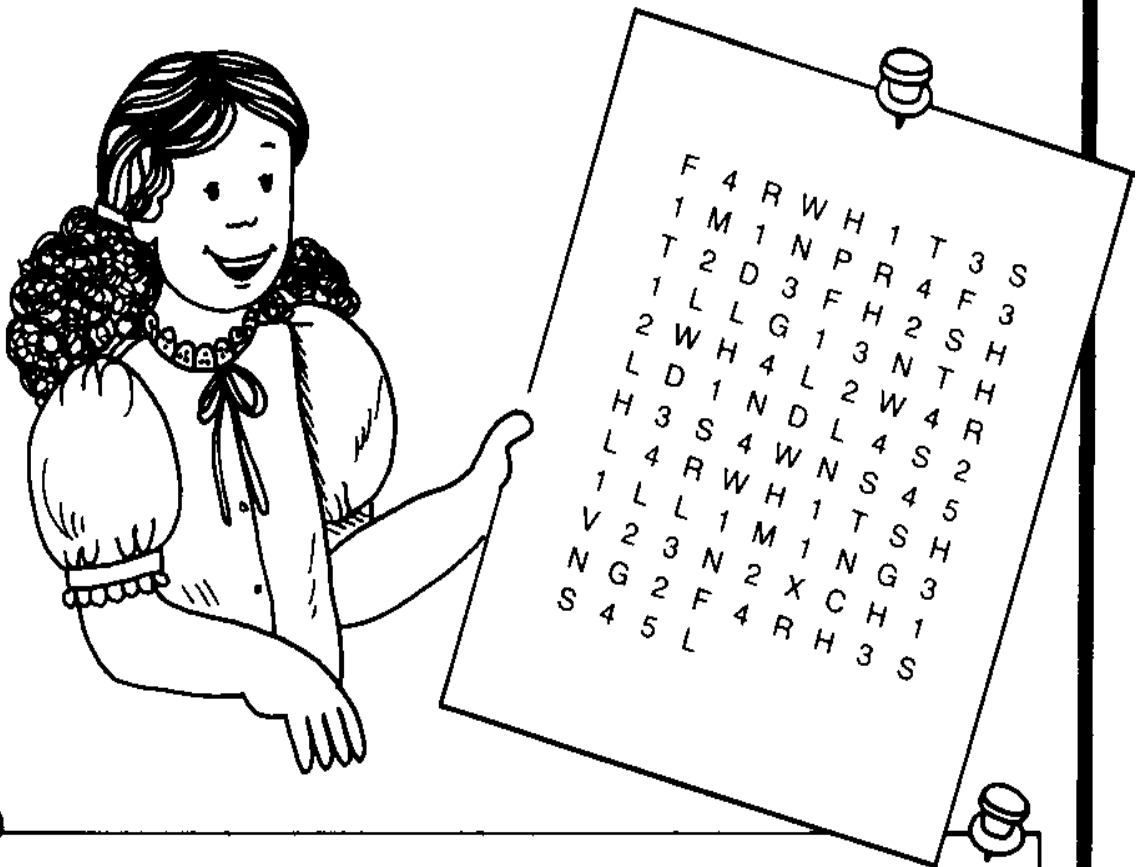
The verse on the left asks two important questions. To find out what they are, place each letter in the coin in order on the blank lines, starting with F. Each time you come to a number, change it to the letter it represents. (1=A, 2=E, 3=I, 4=O, 5=U)

 _____,
 _____,
 _____?

 _____?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아래 두 문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암호를 풀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 1=A, 2=E, 3=I, 4=O, 5=U)



FOR WHAT IS A MAN
PROFITED, IF HE SHALL
GAIN THE WHOLE WORLD,
AND LOSE HIS OWN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제 187 공과 침례요한

성경 본문: 누가복음 3:1-18

요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제시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제시는 생각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나?’ 이곳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깝지만, 광야에서는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제시와 형들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또다시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백 미터 떨어진 강에서 들려오는 듯한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망토를 두르고 잠든 세 형제를 남겨둔 채 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르단 강둑에 도착한 그는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얇은 강가에서 자기 앞에 모인 무리에게 설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시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에 메아리쳤고, 그의 메시지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사람들은 쌀쌀한 아침바람을 개의치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는 회개를 선포했고 장차 올 누군가에 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제시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제시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찢었습니다. 그 사람이 침례에 대해 말한 후, 요단강으로 들어가자 사람들이 줄을 지어 물 속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제시는 이 광경을 경이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한 명씩 물 속에 잠근 후 일으켜 세웠습니다. 물에서 나온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제시는 그 사람의 말의 힘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회개하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는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제시는 이 분이 바로 침례요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침례요한은 예루살렘과 주변의 모든 도시에서 꽤 유명했기 때문에 제시는 그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내 뒤에 오실 분을 맞이 할 준비를 하라.”

그 때, 침례요한의 눈과 제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시는 혼란스러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시는 그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례요한이 제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젊은 친구여. 주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30 분 뒤 제시는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들은 불을 피워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에 갔다 왔니? 요단강변에 갔었니?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침례요한의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던데, 너의 옷이 젖어 있구나!”

제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이니 그 분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침례요한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침례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힘을 다해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제시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용기와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위한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Lesson 187 Activity

I'LL BE A MESSENGER T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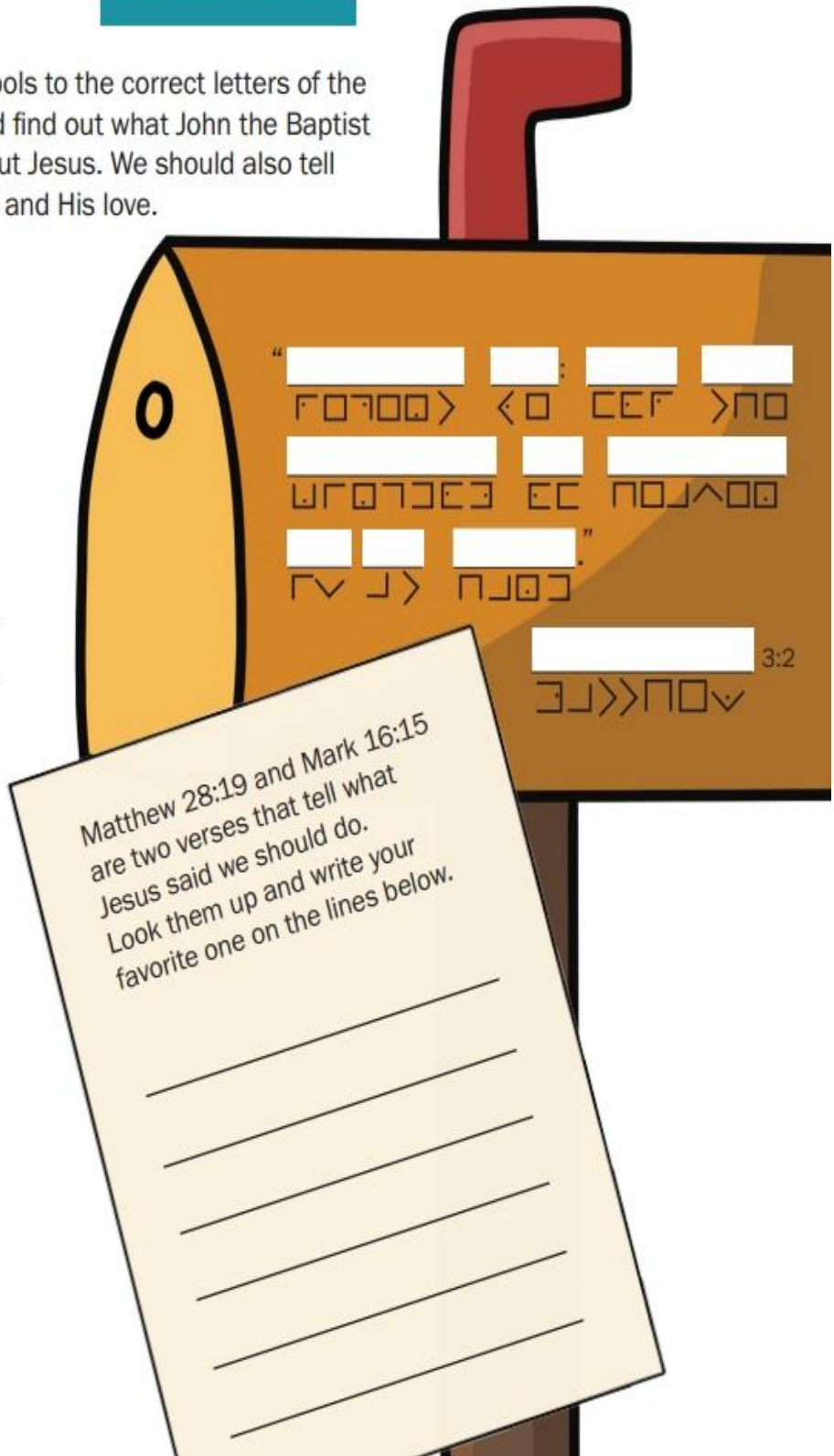
Match the symbols to the correct letters of the verse below and find out what John the Baptist told people about Jesus. We should also tell people of Jesus and His love.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S	U
V		

X	W	Y
Z		



나도 전하는 자가 될래요

아래 암호를 풀고 문장을 완성하면서 침례요한이 전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S	U
V		

X	W	Y
Z		

REPENT Y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MATTHEW 3:2

Matthew 28:19 and Mark 16:15 are two verses that tell what Jesus said we should do. Look them up and write your favorite one on the lines below.

제 188 공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경 본문: 마가복음 16:1-14; 요한복음 20:19-29

요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29)

“파이퍼, 그건, 정말 일어난 사실이야.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야.”

파이퍼는 이안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학교 가는 길에 파이퍼와 나눈 대화 때문에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안은 정말 좋은 아이야. 그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가 가끔 교회에 가는 것은 괜찮지만 평소에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불편해.’

“그럼, 이안, 나중에 보자. 나와 같이 걸어져서 고마워.”

화창한 봄날 정오가 되어 파이퍼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소피아는 점심을 들고 학교 앞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이안이 그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아, 이안은 왜 그렇게 자신의 종교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니? 나는 예수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해.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예수가 훌륭한 교사였다는 것을 믿어. 그런데 이안은 왜 그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그는 심지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고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몰라. 하지만, 이안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인정해야 해. 너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을 나처럼 기억하고 있잖아.”

파이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는 거의 감옥에 갈 뻔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자신이 아는 학생들 중에 가장 착한 학생이 이안이라고 말씀하시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파이퍼. 마르티네스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게 어때? 학교에서 역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잖아. 선생님은 그것이 그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닌지 아실거야.”

파이퍼의 오늘 마지막 수업은 역사시간이었습니다. 파이퍼는 수업 이후 마르티네즈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안에게 종교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는 정말 존재했나요?”

선생님은 검토하고 있던 서류를 내려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파이퍼. 우리는 그분이 1 세기 초에 사셨다는 풍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나는 그 시대에 대해 꽤 많은 연구를 해 왔단다.”

“그는 정말 신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나요?”

“글쎄,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짧은 생애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

“부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찾아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말해야겠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대로 부활이 일어났다는 말을 믿을 만한 근거와 증거는 충분하단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임무였어.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 입구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시체가 기적적으로 사라졌어. 그 후로 5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어.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고, 부활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었어.”

마르티네즈 선생님이 말을 이어가자 파이퍼의 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낙심하고 있던 사람들과 어떠한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들이 있었어. 그들이 실제로 부활의 기적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갑자기 의기양양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 같지는 않구나. 어떤 박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 또한, 그들의 사역으로 수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했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고.”

잠시 생각에 잠긴 파이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고, 내 친구 이안이의 말이 맞네요. 선생님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아... 글쎄.”

“마르티네스 선생님”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이네요. 천국과 지옥이 적힌 성경도 사실고요.”

매우 긴장한 듯 마르티네즈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몇 장을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난 지금 가봐야 하는데, 파이퍼. 아마 이것에 대해 너에게 이야기해 줄 다른 사람이 또 있을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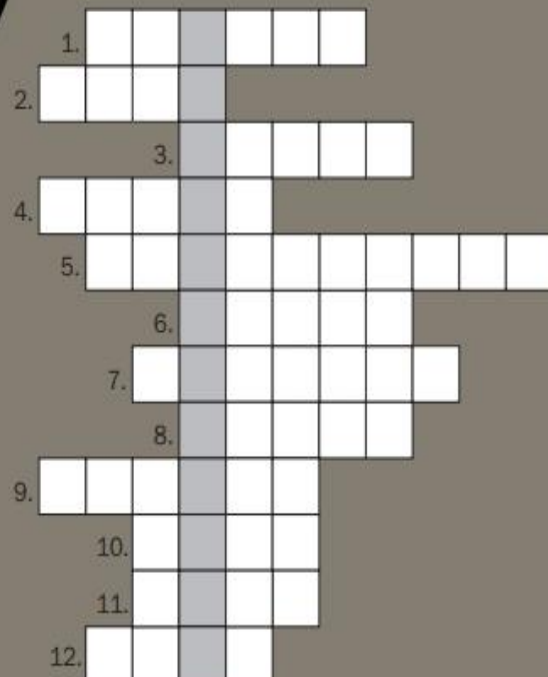
파이퍼는 선생님을 따라 문밖으로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선생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나도 이안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 같아요. 이안은 성경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어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또한 실제로 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선생님?”

Lesson 188 Activity

THE RISEN CHRIST

Do you believe that Jesus lives? He does, and if you believe on Him you can have power and blessings. Fill in the missing words in the verses on the left. Then put those words in the correct order in the puzzle on the right. The word in the shaded area is the key word for this les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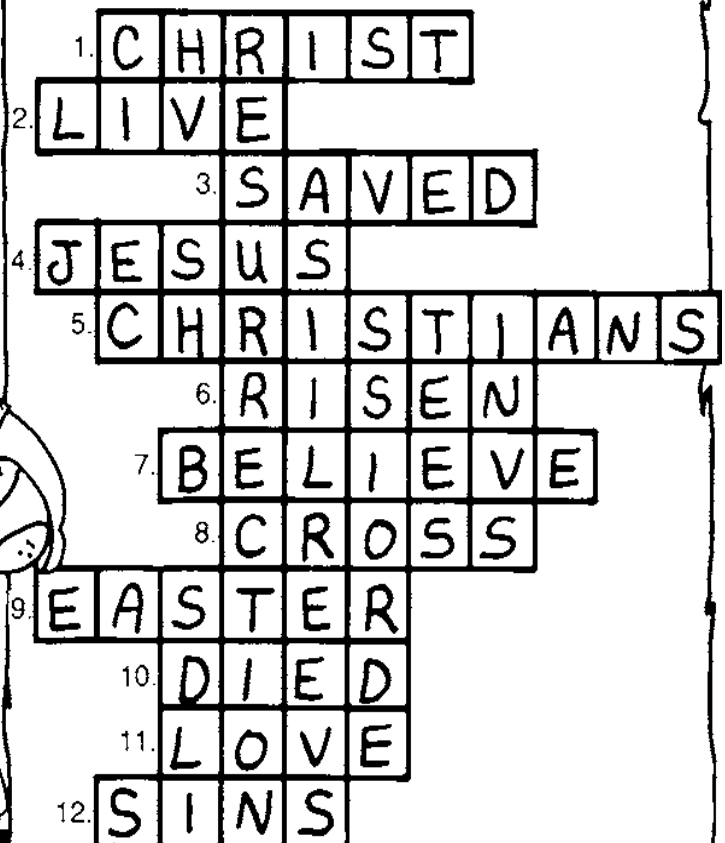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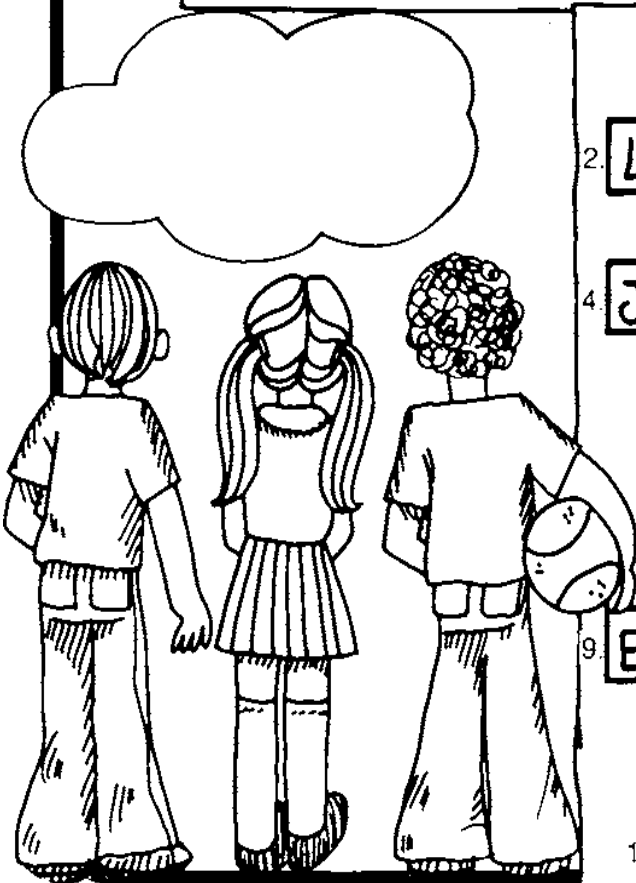
1. _____ is all, and in all.
Colossians 3:11
2. For in Him we _____ *Acts 17:28*
3.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_____. *John 3:17*
4.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_____. *Romans 3:24*
5. The disciples were called
_____. *Acts 11:26*
6. He is not here: for he is
_____. *Matthew 28:6*
7. I _____ that thou
art the Christ. *John 11:27*
8. Take up the _____, and
follow me. *Mark 10:21*
9. Intending after _____
to bring him forth. *Acts 12:4*
10. Jesus Christ, who _____ for us.
1 Thessalonians 5:9-10
11. _____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12. Christ died for our _____.
1 Corinthians 15:3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아래 성경구절을 참고 하며 밑줄에 알맞은 단어를 적은 후 네모퍼즐(RESURRECTION)을 완성해 보세요.

1. Christ is all, and in all. Colossians 3:11
2. For in him we live. Acts 17:28
3. The world through him might be saved. John 3:17
4. Redemption that is in Christ Jesus. Romans 3:24
5.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Acts 11:26
6.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Matthew 28:6
7. I believe that thou art the Christ. John 11:27
8. Take up the cross, and follow me. Mark 10:21
9.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Acts 12:4
10. Jesus Christ, Who died for us. I Thessalonians 5:9,10
11.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John 15:12
12. Christ died for our sins. I Corinthians 15:3



제 189 공과 올바른 선택(베드로)

성경 본문: 마태복음 26:30-35, 69-75; 사도행전 2:14-24, 41

요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안녕, 딜런. 그거 어때?”

깊은 생각에 잠긴 딜런은 에이든과 토비가 도착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딜런은 미소를 지으며 에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좋아! 너희들이 정말 잘 만들었어. 멋지게 해냈구나. 내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도 너희들의 잘못은 아니야.”

토비가 말했습니다. “글쎄, 우리는 현수막만 만들었는걸. 네가 슬로건 글귀를 생각해 냈잖아. '오늘 당신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캠페인을 할 시간이 많지 않아. 타이슨 바넷이 주최하는 파티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거야. 파티로 인해 너를 지지했던 학생들을 타이슨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 '불은 불로 싸워라'는 말 알지? 자, 긴장을 풀고 우리도 파티를 계획해서 학생들을 위해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이기려면 슬로건, 포스터, 배너를 더 만들어야겠어.”

“네 말이 맞아.” 에이든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네가 그것을 좋아할지 모르겠어. 에디슨 고등학교를 빛내줄 노이즈 보이즈 밴드 알지? 그들은 블록 파티에 와서 연주해 줄 거야. 그들이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잘 챙겨준다면 말이야.”

“그렇지.” 토비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는 'Rock the Block!'이라는 슬로건도 만들었어. 누구든지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어.”

딜런은 그들의 말에 답변을 하고 싶지 않아 그들의 열성적인 표정을 외면했습니다.

에이든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서, 딜런, 너의 종교에 약간의 재미를 좀 붙여봐! 어떻게 생각해? 이 파티는 중요한 캠페인 파티가 될 거야. 결정은 너에게 달려 있어. 우리는 레인 브래들리 집에서 파티를 열면 돼. 그의 부모님이 휴가로 지방에 가시거든. 너의 부모님은 전혀 모를 거야.”

딜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가지 않으면 집으로 가는 차를 놓칠 것 같아.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뛰어야 해. 파티에 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게. 내가 재미있게 놀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마.”

그날 저녁 딜런은 수학 숙제를 집중해서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직후 콜린 켈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목요일 밤 교회에서 고등학생 모임이 있음을 한번 더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딜런은 목요일에 학교에서 농구 연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딜런은 농구팀원들에게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농구 연습을 빠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콜린에게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 알려 줘서 고마워. 콜린”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런이 교회에서 청소년 활동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이후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 중 하나는 교회 활동을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이 너무 제한적인 건 아닐까, 인간관계를 조금 더 넓힌다고 해서 문제 될 건 없을 거야. 내가 회장 선거에서 이기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딜런이 만든 슬로건 ‘오늘 당신을 선택하세요!’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설교한 내용 중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말씀을 근거로 찾게 된 글귀였습니다. 딜런은 불안하게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마침내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일을 위해 잠자리에 빨리 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회장 선거일이 되었습니다. 딜런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시끄러운 파티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괴로운 생각들 때문에 그는 잠에서 계속 깨어났습니다. 그와 라이벌 상대인 타이슨 바넷이 한 말이 그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는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파티에 왔다고 말하며 딜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딜런, 놀랍다. 나는 네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파티가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을 때 내가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

딜런은 타이슨에게 “이봐, 내가 교회에 가끔 간다고 해서 이런 것도 못할 줄 알아?”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딜런은 자신이 말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점점 더 불편했습니다.

그는 파티를 생각하면서 신경을 써서 옷을 입었고, 부모님에게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파티에서 딜런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고등학교 회장으로 당선될거야!’라는 말에 그는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비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그 비참함을 외면해 버렸을 것입니다.

주일날 아침, 딜런은 주일학교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관한 성경말씀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일 학교 시간에서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동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결론은 우리의 행동, 말, 취미생활, 친구 교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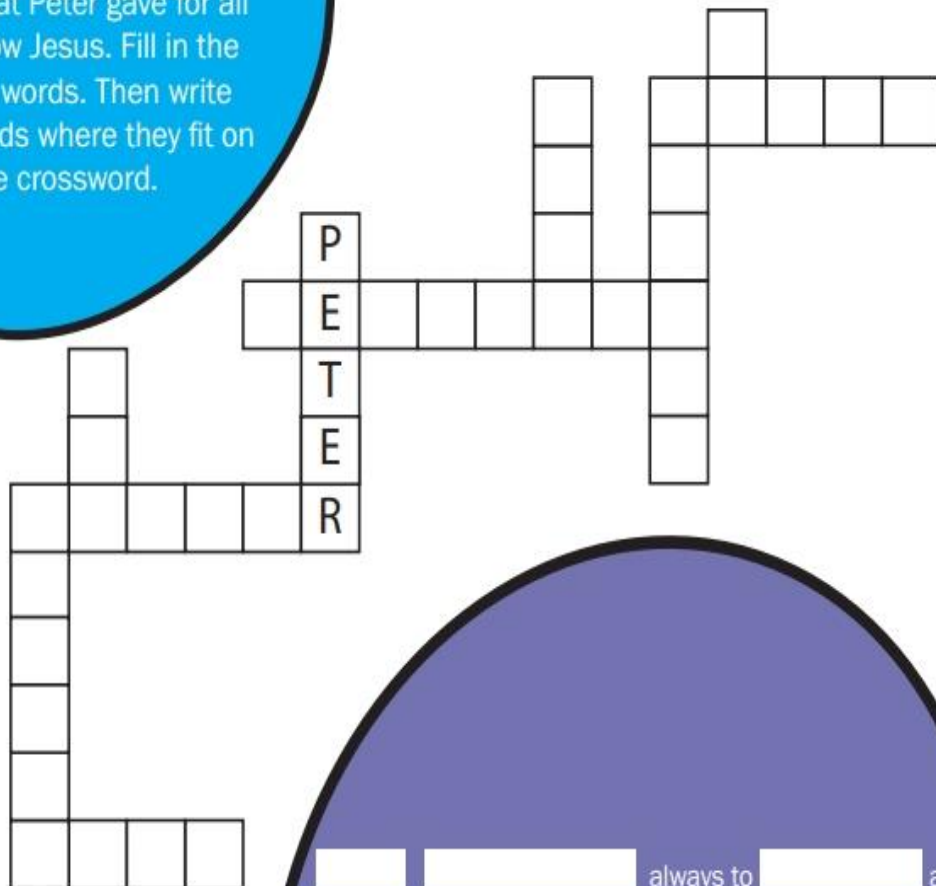
딜런은 주일 오전 예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는 오전 예배 후 기도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빠, 엄마, 나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 났어요.” 딜런이 그날 저녁 식탁에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토록 닮고 싶었던 친구들에게 나는 놀라운 소식을 그들에게 알릴 거예요. 나는 새로운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내가 새로워졌으니 너희들도 새로워져라' 그것이 무슨 뜻인지 친구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려줄 거예요.”

Lesson 189 Activity

**A REAL
CHANGE!**

There was a real change in Peter when he repented and began his new life for Christ. The verse below is advice that Peter gave for all who follow Jesus. Fill in the missing words. Then write those words where they fit on the crossw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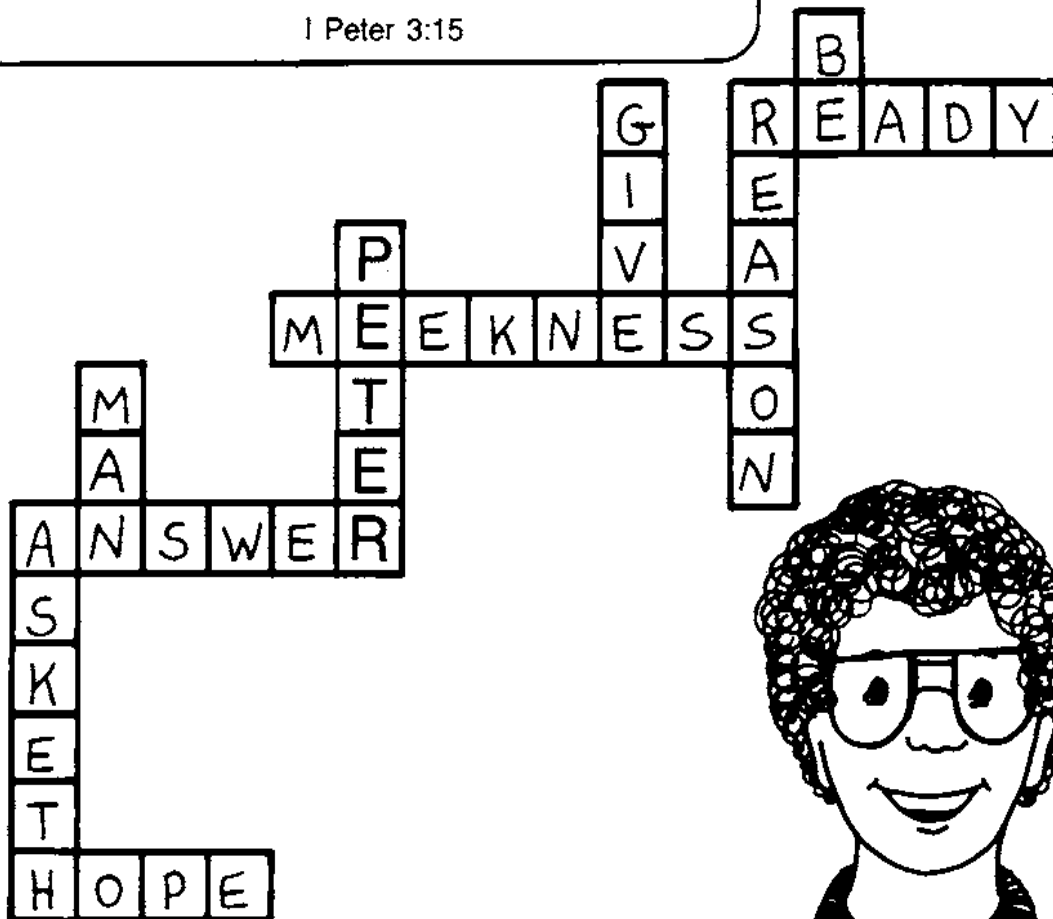
_____ always to _____ an
_____ to every _____ that
_____ you a _____ of the
_____ that is in you with
_____ and fear. -1 Peter 3:15

진정한 변화!

베드로가 회개한 후 그리스도를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은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아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준 조언입니다. 밑줄에 알맞은 단어를 채운 후 퍼즐을 완성해 보세요.

Be ready always to give an
answer to every man that
asketh you a reason of the
hope that is in you with
meekness and fear.

1 Peter 3:15



제 190 공과 누군가의 믿음(바울)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4:8-18; 11:24-28; 디모데후서 4:6-8

요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7)

“자, 서머, 친구들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말해 주었는데, 써머는 누구에 대해 말하고 싶니?”

지난 주일, 주일학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과제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배울 인물은 바울인데, 각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신실한 사람들의 예를 생각해 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서머는 누구를 선택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월요일 밤 그녀는 청소년 모임을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또, 그녀는 주중에 교회에 새로 온 한 가정을 방문에서 두 번이나 그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그 가족에게 매우 아픈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중 예배에 참석하였고, 사람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아직까지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일 아침, 그녀가 선택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아돌프센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들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이전과 이후에도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4 명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맞춰 보아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라이언이 말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일을 매우 성실하게 했습니다.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매일 기도한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습니다...”

“아, 알아요, 다니엘! 다니엘이요!” 서머가 외쳤다.

“잘했어, 서머.”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머가 질문을 내어 볼까?”

“이분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여성이지만, 우리는 그녀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교회 건물이 없어서 대장간에서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일부 난폭한 사람들은 항상 그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돌을 던져 유리창이 깨뜨리고, 계란과 채소들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유리병을 창문으로 던지는 바람에 그녀는 이마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그만 두세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일에 신실했습니다. 그녀가 개

척한 교회는 곧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교회는 현재 여러 나라와 도시에 지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한 단어로는 '예수, 세상의 빛' 입니다."

조시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사도의신앙교회를 시작한 플로렌스 크로포드(Florence Crawford)입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조시. 조시가 설명해 줄 인물이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럼, 다음 거너가 해 볼까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지난주에 이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과 많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다른 번역본을 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유명한 성경구절이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 페이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정말 잘 했어요. 다음, 페이지가 설명해 볼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처음에는 바울이 박해 속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처럼 핍박을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신실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친구들이 내 말에 동의하기를 바라면서 설명해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그녀가 기도해 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녀는 여러분을 돕거나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입니다. 그녀는 남녀노소 모두의 친구입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 해도 돼!'라고 말할 정도의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녀가 그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토요일 아침마다 아돌프센 할머니를 돌봅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말 여행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할머니를 돌보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아돌프센 할머니는 그녀보다 더 신실한 학생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체 학생들은 그녀가 서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머가 얼굴을 붉히는 동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신실한 사람들의 예를 생각하느라 모두들 수고했어요.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예를 기억해 보아요. 특히 마지막 예를 특별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시대에 알려진 것과 같은 박해의 시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신실하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Lesson 190 Activity

**I WANT TO BE
FAITHFUL!**

There is a crown of life for everyone who is faithful in the service of the Lord. Paul knew this was true even when he had many troubles. The words on the list below are from this lesson's Bible text. Find them in the word-find and circle each of them.

F	I	N	I	S	H	E	D	M	Z	Y	G
D	O	O	G	X	Y	Z	B	X	L	N	X
R	P	M	L	R	M	Y	E	M	I	W	M
E	A	Y	O	Y	A	X	L	V	F	O	L
N	U	X	R	Z	Y	C	I	Y	E	R	A
E	L	M	Y	K	Z	G	E	M	Z	C	N
W	O	O	Z	D	S	X	V	K	K	M	R
E	V	Y	R	K	A	Y	E	E	Y	X	E
D	E	M	N	D	Y	E	P	Z	M	Y	T
Y	F	A	I	T	H	T	R	A	I	S	E
Z	H	X	M	Z	K	M	J	E	S	U	S
T	M	Y	S	U	O	E	T	H	G	I	R

GOOD
KEPT
LIFE
LORD

LOVE
PAUL
CROWN
FAITH

GLORY
GRACE
JESUS
RAISE

READY
BELIEVE
ETERNAL
RENEW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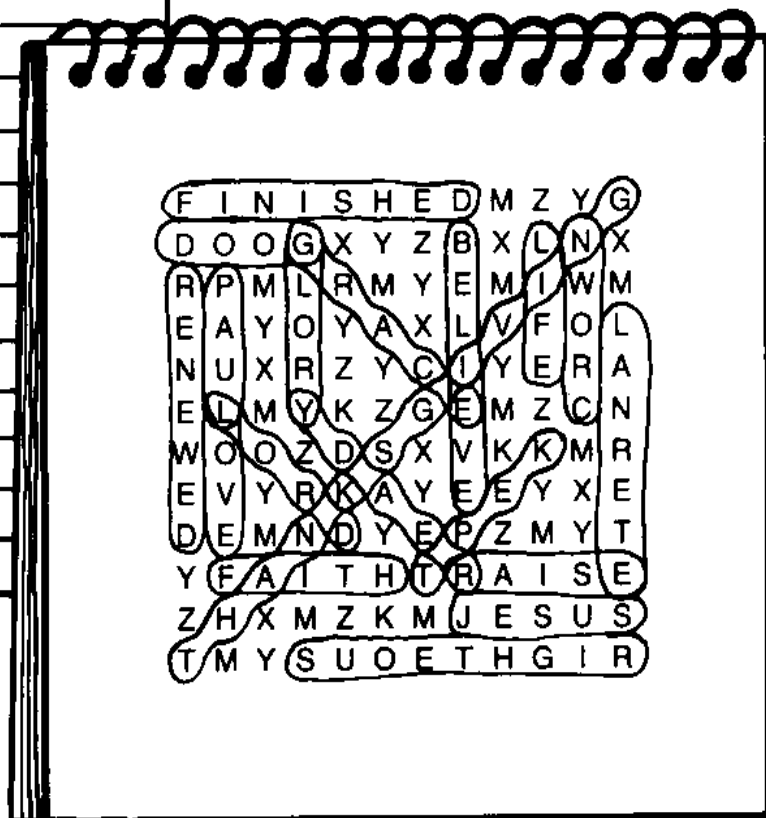
FINISHED
RIGHTEOUS
THANKSGIVING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 집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래 단어 목록은 이번 주 성경 본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알파벳 퍼즐에서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세요

	GOOD
	KEPT
<input type="radio"/>	LIFE
	LORD
	LOVE
	PAUL
	CROWN
	FAITH
<input type="radio"/>	GLORY
	GRACE
	JESUS
	RAISE
	READY
	BELIEVE
	ETERNAL
<input type="radio"/>	RENEWED
	FINISHED
	RIGHTEOUS
	THANKSGIVING



제 191 공과 크고 날카로운 이빨(요나)

성경 본문: 요나 1-3

요절: 여호와와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 3:1-2)

처음에는 돌고래들이 무리를 지어 헤엄치고 조련사가 주는 생선을 받아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물개가 시끄럽게 흔들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제 오션월드 바다쇼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범고래 나부를 볼 차례입니다.

범고래가 많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범고래가 “많은 일”을 했다면 그가 엄청나게 많은 물을 밖으로 뿌려 주변의 모든 사람을 흠뻑 적시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와우!” 앤서니가 소리쳤습니다. “요나가 저렇게 큰 고래 배속에 들어갔었다니 상상이 안 돼.”

갑자기 그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일라니는 조금 낄낄거렸습니다. 아론이앤서니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요나? 그거 정말이야?” 다른 몇몇 아이들도 웃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앤서니, 현대 종교인들도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가 단지 고대 신화라고 말하던데. 고래 입 속에는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사람이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안에서 3 일 동안 사는 것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날 토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그날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 노방전도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노방전도는 몇 주 전에 계획되었고 앤서니는 전도 참여자들을 돕는 도우미로 부탁을 받아 그곳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앤서니는 노방전도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대 신화, 오직 신화일 뿐이다. 단지 신화일 뿐이다.” 그의 마음속에 계속 이 생각이 반복적으로 맴돌았습니다.

노방전도에 가는 대신 그는 바다로 갔습니다. 그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지만, 어선과 보트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안녕, 앤서니, 여기서 뭐 해?” 그가 우울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보니, 같은 반 친구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다소 낡고 투박해 보이는 작은 보트 옆으로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앤서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뭐 하니?”

“나는 내 배를 타고 바다로 가려고.”

“야, 나도 같이 가도 될까?” 앤서니가 물었습니다.

“글쎄, 이런 배를 유지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1 달러만 내면 배를 타게 해 줄게!” 아론이 낡고 작은 보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앤서니는 주머니를 뒤져 구겨진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노방전도에 대한 생각은 앤서니의 마음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모여드는 구름 뒤로 태양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다로 나아가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거센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떡하지? 폭풍이 오고 있어. 갑자기 무슨 폭풍이지?” 아론이 소리쳤습니다. “앤서니, 네가 나에게 불운을 가져온 게 틀림없어!”

앤서니는 순간 요나가 떠올랐습니다. ‘요나!’

강한 돌풍이 보트를 옆으로 밀자 아론은 돛대를 잡았습니다. 앤서니도 정신없이 돛대를 붙잡았지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큰 이빨! 크고 날카로운 이빨!’ 파도가 앤서니를 때려서 물속으로 밀어 넣었을 때 앤서니의 머릿속을 이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상상한 것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따라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빨! 크고 날카로운 이빨! 앤서니는 비명을 지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가 겨우 눈을 떴을 때, 그는 물속이 아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를 향해 몸을 굽히며 말했습니다. “앤서니, 정신이 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이빨!” 앤서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해, 아들아. 괜찮을 거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무슨 이빨을 말하는 거니?”

“요나를 삼킨 고래의 크고 날카로운 이빨이요.” 앤서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마도 그 고래는 이가 없었을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기 위해 특별히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하셨어. 그건 평범한 고래가 아니었을거야.”

앤서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트 여행이 아니라 노방전도에 갔어야 했어.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 주셨듯,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자. 결코 의심하지 말자.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자.’

Lesson 191 Activity

**DON'T BE
A JONAH!**

There is danger in refusing to obey God, but He is merciful and loving. Below are some questions about Jonah, a man who received mercy even though he ran away from God's call. Answer them and then answer the questions that relate to you. Remember, God loves you!

God asked Jonah to preach to Ninevah. Did he go?

What did Jonah ride on that wa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What happened when Jonah disobeyed God? List at least two things.

What did Jonah do while he was in the belly of the fish?

How does the lesson show God's mercy to Jonah?



Do you obey God when He asks you to do something?



What would keep you from going in God's dir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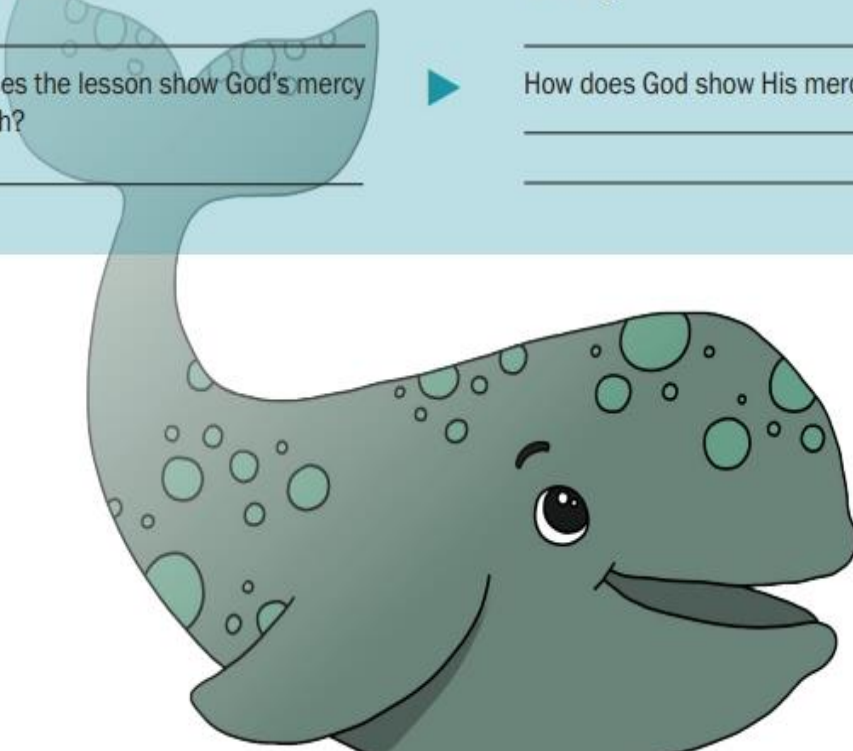
What might happen to you if you disobey God?



What should you do if you want God's blessing?



How does God show His mercy to you?



요나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 요나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과 함께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God asked Jonah to preach to Nineveh. Did he go?

No!

What did Jonah ride on that wa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A Ship

What happened when Jonah disobeyed God? List at least two things.

He was thrown into sea.

He was swallowed by fish

What did Jonah do while he was in the belly of the fish?

He prayed.

How does this lesson show God's mercy to Jonah?

God talked to him a second time.

Do you obey God when He asks you to do something?

What would keep you from going in God's direction?

What will happen to you if you disobey God?

What should you do if you want God's blessing?

How does God show His mercy to you?

제 192 공과 하나님의 능력(엘리사)

성경 본문: 열왕기하 2:1-15

요절: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열왕기하 2:9)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쩐지 오늘은 보통 때와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이 우리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계시해 주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나는 우리 앞에 펼쳐진 평원과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앉아 있는 동안, 나의 불안함을 씻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우리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나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것이 과연 선생님과 마지막 시간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면 우리 백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엘리야 선생님은 확실히 여호와와의 뜻을 우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번 알려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 사이에서 그의 탁월한 리더십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6 년 동안 엘리야 선생님을 돕고 동행했던 엘리사가 어떻게 그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조용한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임이 분명하지만, 우리는 엘리사가 말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한 말은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나는 그가 그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근심스러운 표정을 내 마음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는다는 생각에 행복함도,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엘리야 선생님의 연설에서 볼 수 있는 권위와 박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과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 * * * *

내가 이 문서를 쓴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기에 기록한 나의 이전 생각들을 돌아보면서 엘리사에 대한 나의 감정이 변한 것을 보고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그날, 평범한 날이 아니라고 느꼈던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들은 평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남쪽 길이 아니라 바로 강둑으로 향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해안에 서자, 엘리야는 그의 겹옷을 말아 그들 앞에 흐르는 물을 쳤습니다. 내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엘리야가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한 몸이 된 듯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강 반대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단단하고 마른 땅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길을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나는 곧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은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서 있던 다른 선지자의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은 두 인물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넌 뒤 잠시 멈췄다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몇 걸음 더 가자 그들 바로 위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말로 표현하고 설명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두 사람보다 더 큰 불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를 휩쓸었고, 순식간에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사라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는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슬픔이 나에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외롭게 혼자 남아 있는 한 사람을 주의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는 몸을 굽혀 땅에서 옷 한 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다시 강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조금 먼 거리에서도 나는 그가 단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다가가서 조금 전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옷을 말았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긴장감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강물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물이 갈라질 것인가? 어찌된 일인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엘리야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하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짧은 순간에 나는 답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물을 쳤고, 물은 다시 갈라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성큼성큼 걸어가자 우리 모두는 그를 만나려고 달려갔습니다.

나의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엘리사와 이야기했을 때 그 의심은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한때 조용하고 겸손했던 엘리야의 종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과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다른 사람, 곧 엘리야에게서 느꼈던 것보다 그에게서 주 여호와와 영을 더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도록 선택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Lesson 192 Activity

I WANT MORE!

Wanting more of God's Spirit on your life is a good thing. This way God can help you do more for Him. Elisha is a good example for us to follow. Each sentence below contains a hidden word from our lesson. A list is given but the words are not in the correct order. We have found the first word for you. Have fun!



FIRE HEAD	SONS LEAVE	SHALL LIVETH	PARTED PORTION
--------------	---------------	-----------------	-------------------

Money was given to help Art Edwards buy a bike.

Judy finally found her lost cat on Circle Avenue.

I have a complete set of the presidents' pictures on stamps.

Mom said I have to finish all my homework before I can play ball.

I need to decide what stuff I really need and what I can throw away.

Tell Bill I've thrown his old shoes away.

I told her to add one cup of sugar but she added two.

At the airport, I once saw a military bomber.

나는 더 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엘리사는 우리가 따라야 할 좋은 모범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래 단어들을 문장 속에서 찾아보세요.

Money was given to help Art Edwards buy a bike.

Judy finally found her lost cat on Circle Avenue.

I have a complete set of the presidents' pictures on stamps.

Mom said I have to finish all my homework before I can play ball.

I need to decide what stuff I really need and what I can throw away.

Tell Bill I've thrown his old shoes away.

I told her to add one cup of sugar but she added two.

At the airport, I once saw a military bomber.



제 193 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모세의 어머니)

성경 본문: 출애굽기 1:22; 2:1-10; 히브리서 11:23

요절: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5)

요게벳은 미리암이 돌아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려고 몸을 조리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고민거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었습니다.

바로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지만, 출산을 도운 산파들은 남자 아기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요게벳의 이웃과 친구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내아이를 잃었습니다. 이 땅에는 이 잔인한 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가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을 생각하면서 요게벳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녀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석 달 동안 자신의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암람이 그녀를 도왔고 그들의 딸인 미리암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기가 커가면서 작은 집에서 그를 조용히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주 동안은 아기가 발각될까 봐 두려워하며 고통 속에 지냈습니다.

며칠 전으로부터 그녀는 아기를 강가 갈대밭에 숨기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바로가 남자 아기들을 강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누가 강에 아기를 숨길 생각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담을 수 있을 만큼 작은 갈대 바구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에 역청을 칠하고 그것을 건조한 후 물이 새지 않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이 만든 바구니가 물에 뜨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른 아침 그녀는 소중한 아기를 그 안에 조심스럽게 눕힌 다음 덮개를 씌워 아기가 숨을 쉴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리 와, 미리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기 전에 우리는 어서 강에 도착해야 한단다.”

서둘러 두 사람은 강기슭으로 걸어갔습니다. 요게벳은 갈대로 들어가 특별히 두꺼운 갈대를 골라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가 뒤집히지 않을 만한 곳에 그것을 놓아두었습니다. “주 하나님, 이 아이는 이제 당신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썼습니다. 그녀는 미리암이 서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리암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이 생각한 것을 미리암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서 지켜봐 주겠니?”

이제 요게벳은 집에서 미리암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아기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

나눔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녀의 아기를 위해 무엇을 하실지 보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요게벳은 미리암의 발소리를 알아차렸습니다. 집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 미리암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무슨 일이니? 아기는 괜찮니?"

"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가는 길에 말씀드릴게요."

요게벳은 재빨리 딸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서둘러 다른 집들을 지나갈 때 미리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가에서 아기를 지켜보았어요. 만약 악어가 오면 돌을 던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미리암이 여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미리암은 놀라움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강으로 내려왔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보라고 시녀 하나를 보냈습니다. 열어보니 아기가 울고 있었어요. 공주는 아기를 바구니에서 꺼내면서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가 그를 꼭 안아주자, 그는 울음을 그쳤고, 이내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공주는 아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나는 공주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불쌍한 아기, 이 아기는 히브리 아이구나. 내가 그 아기를 먹일 수만 있다면 내가 아기를 키울 텐데.' 나는 그 말을 듣고 공주에게 달려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를 부르기 위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공주에게 어머니가 아기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강기슭으로 통하는 길에 이르러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공주와 시녀들이 모여 소중한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요게벳은 속으로 떨면서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가 통치자의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는 요게벳을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자기 품에 안겨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기는 너희 백성의 자녀 중 하나이지만 이제는 내 것이란다. 내가 그를 강에서 건졌으니 그를 모세라 부를 것이다. 그를 데려가서 마치 당신의 아들처럼 돌봐주거라. 나는 당신에게 돈을 줄 것이다. 나는 경비병들에게 그가 내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때가 되면 내가 그를 불러서 나와 함께 궁전에서 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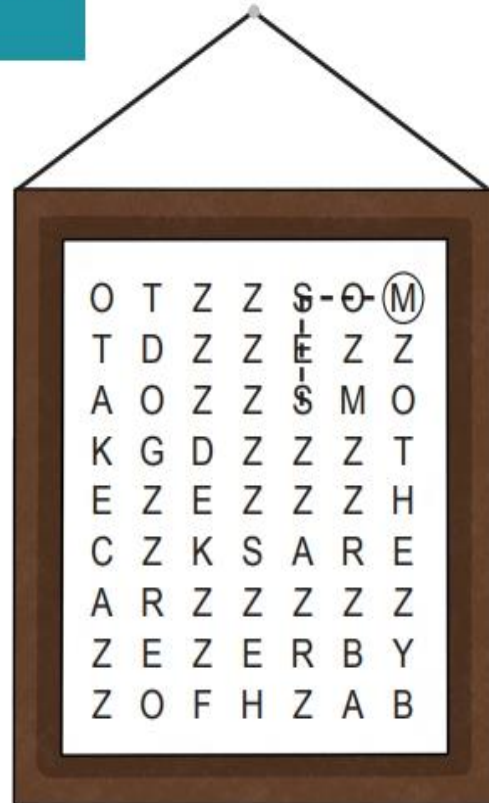
요게벳은 조용히 일어나 아기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아기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세. 공주는 너를 모세라고 불렀구나. 나도 너를 모세라고 부를 거야. 너 이름의 뜻은 '건져내었다'라는 뜻이란다. 내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강에서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잠깐 너를 나에게 다시 돌려주셨구나. 네가 나와 함께 있는 한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관해 너에게 가르쳐주마. 너는 바로의 궁전에서 살게 되겠지만, 네가 우리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누가 알겠니?"

그 이후 요게벳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 응답하셨습니다!

Lesson 193 Activity

I'LL TRUST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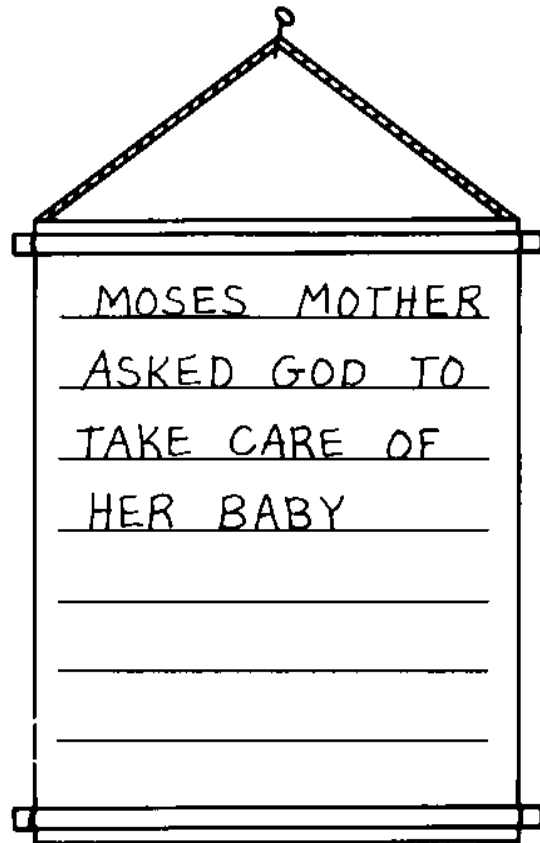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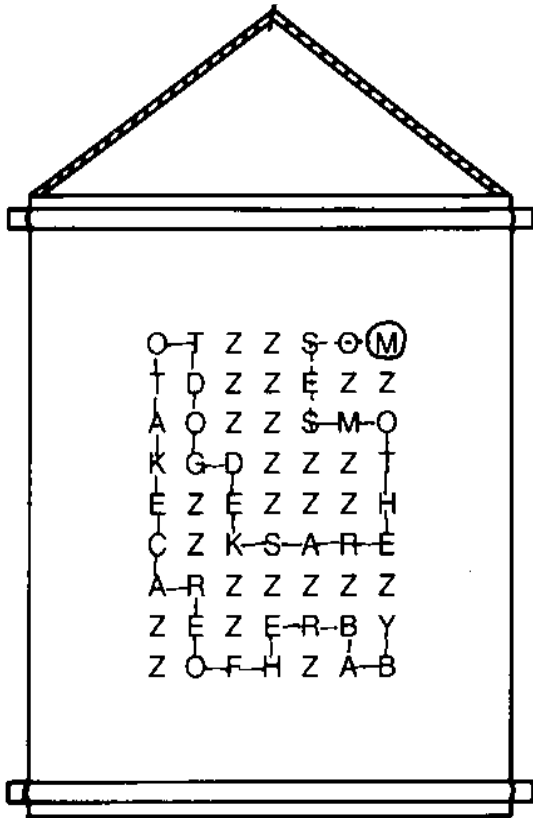
When we have a need we can ask God to help us, and He will. Moses' mother trusted God too. What did she ask for? Start with the circled letter and move from letter to letter, right and left, up and down, but not diagonally. Write the answer on the lines below.



On the lines below list some 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give to God, knowing that He will take care of them.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M 을 시작으로 Z 를 피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대각선 이동 금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제 194 공과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신다(솔로몬)

성경 본문: 출애굽기 1:22; 2:1-10; 히브리서 11:23

요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열왕기상 3:9)

"나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어!" 카일리는 목소리가 거의 끊어질 것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대답하면 내 말에 허점이 많다고 쏘아붙여. 가끔은 성경 문학 수업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기도 해!"

레일라는 카일리를 동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카일리, 정말 힘들 것 같아. 조엘스테드 선생님이 까다로운 분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그 선생님은 자신의 분야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시다는 말을 나는 항상 들었어."

"아, 맞아, 선생님은 성경을 정말 잘 알고 계셔. 그것이 바로 내가 선생님을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선생님은 내가 무엇을 믿고 왜 믿는지에 대해 나에게 질문 많이 하셔. 또, 어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가 주장을 하는지 계속 물어보셔. 내가 성경을 근거로 말하지 못하면 뭔가 내 주장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을 가지고 말해. 나는 하나님께 내가 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레일라는 점심을 먹으면서 카일라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 카일리? 선생님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니?"

카일리는 무릎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냅킨으로 손을 닦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레일라, 선생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 선생님이 비열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셔. 선생님이 정말 궁금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을 솔직하게 알고 싶어서 나에게 질문을 하는 것 같아. 내 생각과 반대되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 같아."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제는 나인 것 같아.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내가 믿는 것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레일라는 마지막 남은 쿠키를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글쎄, 한 가지 좋은 점은 학교 수업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버티면 어때? 카일리."

"아, 그러네. 몇 주 안 남았구나..."

그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카일리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성경 문학 수업을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자기에게 올바른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만이 그녀가 성경 문학 수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 카일리는 자기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날 아침 솔로몬과 그의 지혜에 관해 열왕기상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요약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마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분명히 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주실 줄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깐 동안 교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카일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카일리? 혹시 기도를 해서 IQ가 높아진 사람을 아나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수학 방정식의 답을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거나 생물학 수업 내용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결정과 선택을 올바르게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 듯 카일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 참 흥미로운 대답이네요, 카일리.”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업 후에 잠시만 교실에 남아 줄 수 있나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종이 울리자 카일리는 책상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반 친구들은 책을 정리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쿵쥔거리며 선생님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선생님은 책상에 있는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일리, 나는 네가 우리 수업에 참여한 것이 정말 즐거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에 대한 오늘 너의 견해는 정말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수업 시간에 너에게 꽤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어요. 너는 나의 질문에 매우 훌륭하게 답변해 주었어요. 사실 너의 대답이 너무 훌륭해서 너의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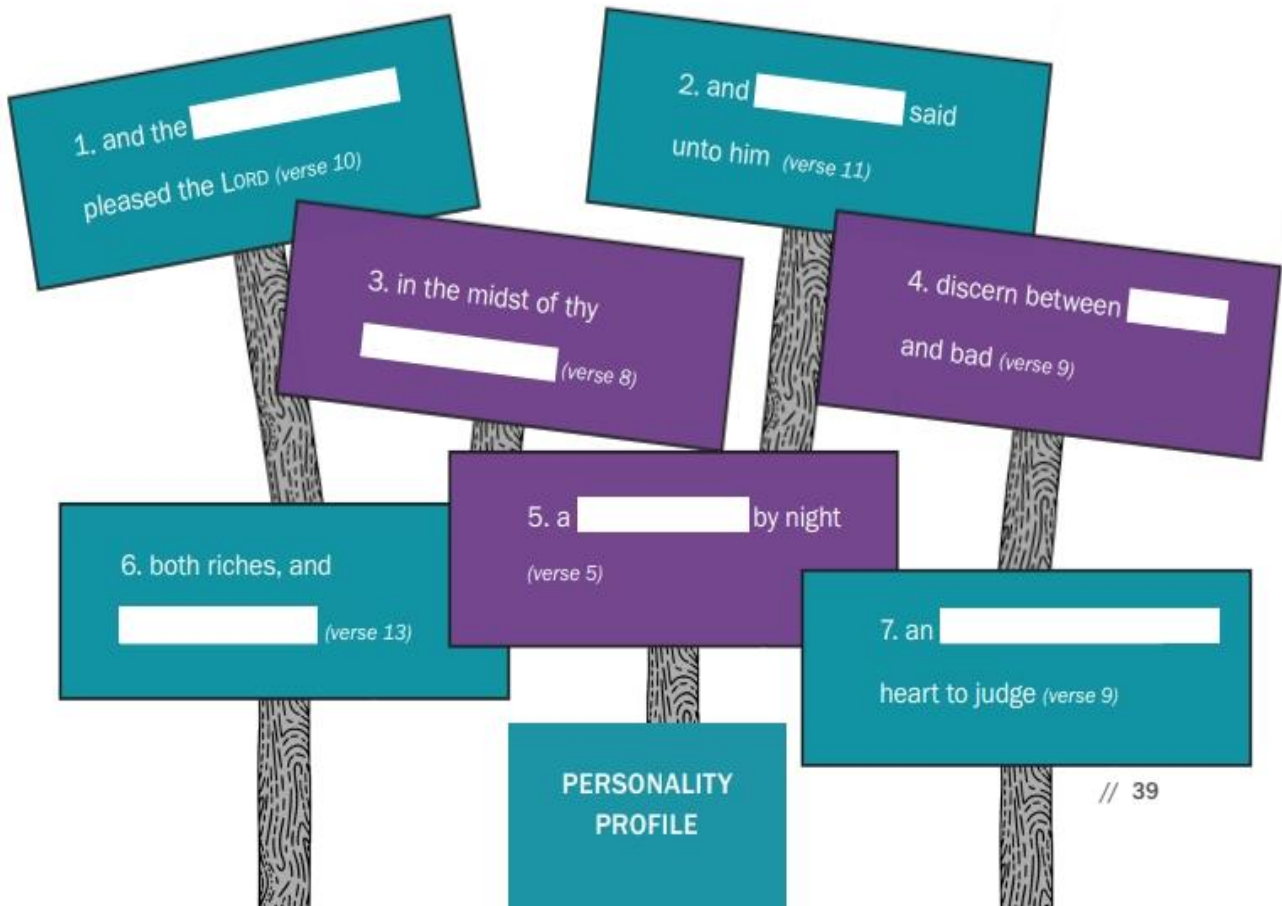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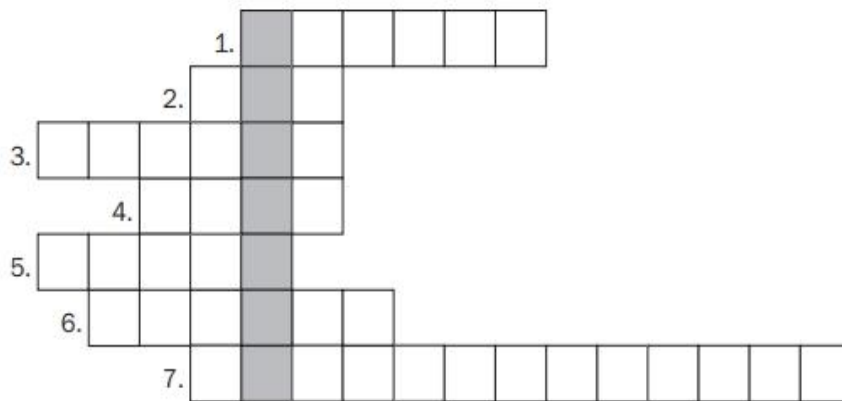
카일리는 선생님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어요.”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믿음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카일리.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Lesson 194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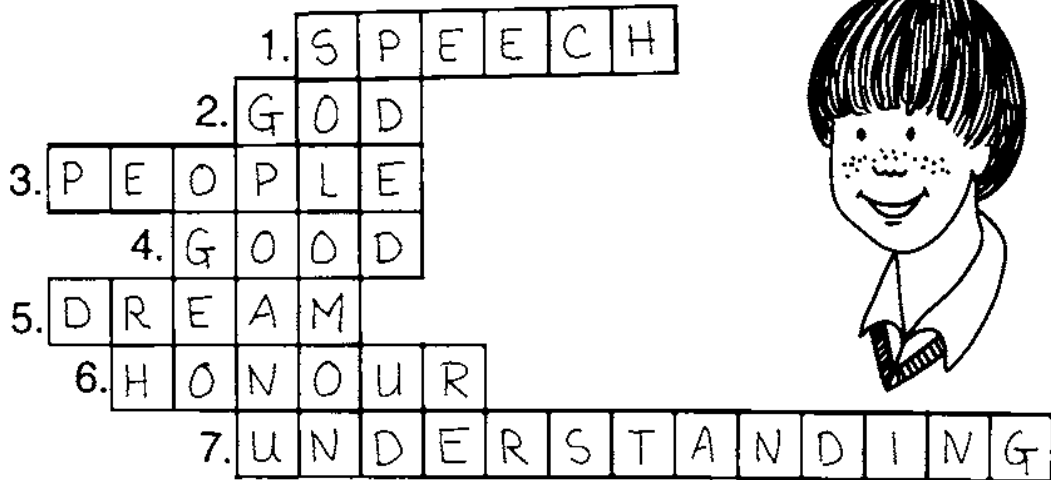
A WISE GUY

We should ask God for wisdom in our lives. Read 1 Kings 3:5-14 to find the words that are missing below. Write the words in the acrostic puzzle. The name in the shaded area belonged to the man who asked God for wisdom before anything else.



지혜로운 사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14절을 읽고 아래에 누락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and the speech
pleased the Lord
verse 10

2. and God said
unto him
verse 11

3. in the midst of thy
people
verse 8

4. discern between good
and bad
verse 9

5. a dream by
night
verse 5

7. an understanding
heart to judge
verse 9

6. both riches, and
honour
verse 13

제 195 공과 공과 복습

성경 본문: 히브리서 11:8-27

요절: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시편 37:37)

여러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신발 끈을 묶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형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모형 자동차를 조립하거나 캠프파이어를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을 수 있습니다. 엄마가 피아노 치는 법이나 쿠키 굽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도 배울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고 그가 했던 방식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교훈을 얻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했던 것처럼 하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분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12 명의 인물을 공부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이번 분기 퀴즈를 풀면서 알아보십시오!

인물 연구

우리가 공부한 성경 인물에 대해 한두 단어씩 적어 보세요. 그 사람은 정직하고 사랑이 많고 용감하고, 현명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 뭐라고 쓸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Abraham:

Isaac:

John the Baptist:

Jonah:

Solomon:

Paul:

Moses' mother:

Elisha:

Lot's wife:

Esau:

Peter:

Jesus: